

8·15 특집

푸른 눈의 친한^{親韓} 영국인들이 만든 ‘한국친우회’^{韓國親友會}를 아시나요?

웨스트민스터 안에 꼭꼭 숨어 있는 한국의 해외 독립유적지
종군기자 출신 독립유공자 매켄지와 유럽의 ‘유진 초이’ 황기환의 만남

세계 곳곳에 우리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다. 많은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중 영국에는 두 곳, 대한제국 시기 주영 공사관 건물(런던 London 얼스코트 Earl's Court 트레버로드 Trebovir Road)과 영국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하원 6호실이 있다. 옛 주영 공사관 건물은 1905년 대한제국 서리공사 이한응 열사가 을사늑약의 울분으로 자결, 순국한 곳이며 영국 국회의사당 하원 6호실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임시정부의 런던 외교관 황기환과 영국의 종군기자 매켄지 등 친한 인사들이 모여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비난하고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한국을 돕고 지지하는 한국 독립운동 후원 단체인 ‘한국친우회’를 결성한 곳이다. 독립운동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것만큼 그 현장으로 들어가 영국 내 사적지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찾아본다

외국인이 한국의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수는 모두 70명이다. 그중에 영국인은 6명, 유럽 국가 출신이 모두 9명(프랑스 1인, 아일랜드 2인)이라 한국의 독립을 크게 도운 유럽인은 대부분 영국인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영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은 일본과 더 가까웠고 일제의 통치를 지지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당시 한국의 실상을 직접 보고 경험한 영국인들은 국가의 입장과 달랐다. 일제의 압박에 신음하는 조선의 독립을 도운 파란 눈의 영국인들 중 언론인으로서 일제 침략

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손잡고 직접 영국에서 ‘한국친우회’라는 친한.반일 단체를 결성한 프레더릭 매켄지(1869-1931) Frederick A. McKenzie가 있다.



▲ 한국친우회 결성을 주도한 매켄지와 그가 촬영한 의병 사진.

한국친우회 Friends of Korea를 얘기하려면 자연스레 매켄지에서 시작된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 기자였던 그는 1904년 러일전쟁 취재차 처음 대한제국에 발을 딛는다. 일제 종군기자로 활동했던 그

는 당시 대부분의 서양인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무능하고 부패한 대한제국을 일본이 개혁해 고치고 근대화시켜줄 것으로 믿고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잔혹한 일제의 참모습을 보고 친한·반일로 생각이 바뀐다. 1906년 대한제국을 다시 방문한다. 당시 영국과 일본은 매우 긴밀한 관계였기에 영국 기자인 그는 활동에 있어 많은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으로서도 유일하게 지방으로 내려가 의병 활동까지 취재할 수 있었다. 1907년은 조선통감부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했고 이에 항의해 의병이 도처에서 일어났던 시기다. 그는 충청북도 제천, 강원도 원주 등 첩첩산중 깊이 숨어 활동하던 의병을 찾아가 열악한 환경에서 빈약한 무기로 싸우는 그들의 활약상을 기록했다. 그가 경기도 양평군 인근에서 촬영한 의병들의 모습은 매우 유명하면서도 희귀한 자료다. 이 사진과 그의 이야기는 인기 드라마였던 <미스터 션샤인>에도 소개됐다. 1907년 매켄지는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충청북도 취재기를 통해 ‘도시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탔다. 일본군은 여자를 강간하고 아이까지 학살한다’라는 내용으로 본사에 송고했는데 일본과 친밀했던 영국에서 신문에 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반일 기자로 낙인찍힌다. 1908년 그는 ‘대한제국의 비극(Tragedy of Korea)’이라는 책을 써서 “조선인은 일제의 통치에 반대한다”며 일제의 만행을 고발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매켄지의 반일활동은 영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로 인해 영국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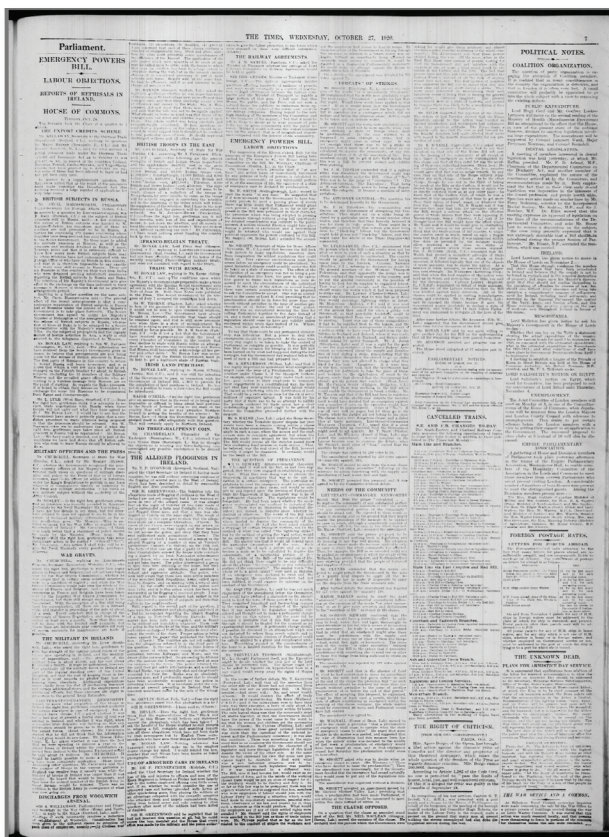
“우리는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한국을 돕고 지지한다”

그러나 매켄지는 3·1운동, 일제의 제암리 학살

s Fight for Freedom 혹은 ‘한국의 독립운동’이라고도 함)을 발간해 영국 의회를 비롯해 영국 사회에 배포했다. 이 책은 당시 영국에서 일던 반일정서와 맞아 영국 의회에서 극동 문제를 논의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 이에 고무된 매켄지는 대한민

A meeting to establish a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 in Great Britain was held at the House of Commons yesterday. Sir Robert Newman, M.P., presided, and Mr. F. A. McKenzie spoke.

▲ 사진1. 1920년 10월 27일 자 영국의 더 타임스



▲ 사진2. 1920년 11월 3일 자 영국의 맨체스터 가디언

국임시정부 런던주재 외교위원으로 임명된 황기환과 함께 1920년 10월 26일 하원 의사당 House of Commons 제6호 위원실에서 ‘한국친우회’를 결성한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가 우리나라 독립운동 해외 사적지가 된 역사적인 날이다. 한국친우회가 결성된 바로 다음날(1920년 10월 27일 자) 영국의 더 타임스 The Times는 짧은 기사를 냈다.

《사진 1》 더 상세한 기사는 맨체스터 가디언(The Manchester Guardian : 지금의 가디언 The Guardian) 1920년 11월 3일 자 신문에 나온다. 《사진 2》 현재 한국친우회 결성에 관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이 소식이 ‘맨체스터 가디언’에 실렸다고 나오는데 가장 먼저 보도한 신문은 ‘더 타임스’다. 바로 다음 날 보도했다. 어쨌든 두 신문에 나온만큼 진보 성향의 대표 유력지인 가디언과 보수 성향의 대표 유력지인 타임스가 모두 한국친우회 결성 소식을 보도한 것이다.

한국친우회가 결성된 곳은 영국 국회의사당 하원 제6호실 England Parliament buildings room No. 6, London. 국회의원과 교수 등 각계 저명인사

62명이 참석했다. 이날의 발족 회의는 하원의원 뉴먼 R. Newman의 사회로 열렸으며, 회장을 맡은 로버트 뉴먼 바트 경 Sir Robert Newman, Bart은 개회사에서 “본회는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한국을 돕고 지지할 목적으로 열린다”고 선포했다. 황기환과 매켄지의 연설이 있었고, 런던 침례교회 장로인 존 클리퍼드 J. Clifford박사와 육군 대령 존 워드 J. Ward에 의하여 한국 독립운동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

록에 따르면 결의문에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사회적·종교적 상황의 개선, 일본의 식민정책, 한국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 한국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전파, 독립운동가 가족에 대한 원조> 등이 포함된다.

FRIENDS OF KOREA. -
PARLIAMENTARY GROUP FORMED.
(From a Correspondent.)
Mr. John Hinds, Colonel Tom Parry, Major J. Edwards, Mr. J. Hugh Edwards, Mr. Tomlyn Jones, and a number of other members of Parliament have formed a group to be known as the "Friends of Korea," to obtain an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s—social, political, and religious—under which the Koreans have lived for the last ten years.
Mr. Llewellyn Williams has been appointed honorary secretary of the group, which includes about 30 members of Parliament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influential people outside the House of Commons.

한국친우회를 결성한 영국인들은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이 친한 인사가 된 까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통치방식이 자신들이 믿는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친우회가 결성된 1920년은 일본과 영국의 관계가 처음처럼 긴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902년 체결된 영일동맹이란 관계가 1922년까지 지속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영국에서 친한. 반일 인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였다.

그런데 매켄지가 쓴 <한국의 독립운동>과 같이 일제의 만행과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상세히 알려주는 글이 영국 지식인 사회에 퍼지고 이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비인도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영국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친한.반일 인사가 되는 과정에는 일본의 혹독한 식민지배를 제대로 알린 매켄지와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켄지의 글은 대한민국의 국권이 침탈되는 과정에 그에 맞선 한국인의 투쟁을 목격담 위주로 전달한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과정에 자행된 잔인한 고문을 그대로 생생히 묘사한다. 일본의 통치 방식이 잘못됐으며 한국은 그런 대우를 받을 민족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국은 문화적 전통이 훌륭하고 한국인은 서구 학문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소개한다. 매켄지의 이러한 생생한 소개가 당시 유럽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한 ‘일본의 앞선 문명이 미개한 한국을 발전 시켜 줄 것이다’라는 오판을 일깨워준 것이다. 유럽의 친한파 인사들의 탄생은 제대